

언어구분 KOR

논문구분 원저/구연

논문분야 고관절

논문제목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시행한 **Ganz** 비구 주위 절골술

영문제목 **Ganz periacetabular osteotomy for hip dysplasia**

발 표 자 이오성

책임저자 유정준

저 자 이오성, 백지훈, 유정준, 구경희, 김희중

기 관 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서론 : Ganz 비구 주위 절골술은 대퇴골두의 변형을 동반하지 않은 비교적 젊은 환자의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초기인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의 시기를 지연할 수 있는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. 저자들은 비구 이형성증으로 Ganz 비구 주위 절골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 : Ganz 비구 주위 절골술은 대퇴골두의 변형을 동반하지 않은 비교적 젊은 환자의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초기인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의 시기를 지연할 수 있는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. 저자들은 비구 이형성증으로 Ganz 비구 주위 절골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결과 : Harris 고관절 점수는 술 전 66.0점에서 최종 추시 시 90.7점으로, VAS 점수는 7.9점에서 1.7점으로 향상되었다. CE 각은 술 전 평균 7.2°에서 41.8°로, 비구각은 평균 50.4°에서 33.8°로, Tonnis 각은 평균 23.0°에서 7.3°로, 대퇴골두 피복은 평균 59.7%에서 86.3%로, 비구 깊이는 평균 191.1에서 310.3로 호전을 보였다.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으며, 1례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로 전환하였다

결론 : 비교적 젊은 환자의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인 경우 Ganz 비구 주위 절골술은 임상 및 방사선학적 호전을 보이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.

acknowledgment :

고관절 이형성증, Ganz 비구 주위 절골술
